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5.12.10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유럽의회, 유럽단일연구공간 법안(ERA Act) 논의 선점(12.4)

- 유럽의회가 집행위 공식 제안에 앞서 ERA 법안 논의를 선제적으로 시작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고, 2026년 3월까지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함
- 연구산업위원회 라코스 의원은 ERA를 유럽 경쟁력의 핵심 도구로 규정하며, ▲학문적 자유 보호, ▲강력한 거버넌스 구축, ▲R&D 투자 3% 달성, ▲연구자 이동성·경력 개선을 4대 우선순위로 제시
- 특히 3% R&D 투자 목표는 회원국 간 여건 차이로 논쟁이 예상되나, 유럽의회는 이를 법안에 반영해 공동 목표를 견인하려는 입장

○ EU 집행위, 항공산업 전략 마련 착수(12.4)

- EU 집행위가 항공산업을 위한 신규 산업전략 수립에 착수했으며, 규제 간소화 등 연구혁신 투자 방향과 호라이즌 유럽 내 Clean Aviation ·SESAR 공동사업단의 후속 파트너십 구조 재정비가 핵심이 될 전망
- 산업계는 연구예산 대폭 확대, 항공 탈탄소화 지원 강화 등을 요구, EU는 항공·국방·우주 간 이중용도 기술 협력 확대를 제안

○ EU R&D 지출 4,031억 유로로 증가했지만, 집약도 2.24%로 목표 여전히 미달(12.4)

- EU 목표치인 3% 이상의 R&D 집약도를 달성한 국가는 스웨덴(3.6%), 벨기에(3.4%), 오스트리아(3.3%), 핀란드(3.2%), 독일(3.1%), 덴마크(3.0%)

※ 2023년 기준 주요국 R&D 집약도는 한국 4.96%, 미국 3.45%, 중국 2.58%, 일본 3.44%로 EU를 상회. 2014-2023년 사이 미국은 146% 증가(8,837억 유로), 중국은 174% 증가(4,355억 유로), EU는 62.2% 증가에 그침(영국 제외)

○ (기타) ▲경쟁력위원회 회의, 미래 연구혁신 주요 우선순위 논의(12.9) ▲연구 평가 개혁 회의, 평가 방식 혁신을 위한 논의 진행(12.5) ▲EIC 포럼, 유럽 혁신법에 대한 입장문 채택(12.5) ▲ERC, Consolidator Grant 수혜자 발표(12.9)